



제주혈액원 세계헌혈자의날 기념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박은영)은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자들에게 감사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헌혈에 참여하고, 세상을 뛰게 하자!'를 주제로 다양한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뽕나눔터에서 대학 RCY와 협업을 통해 '헌혈자를 위한 제빵 봉사활동'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만들어진 쿠키는 대학 RCY 회원들이 시청 인근에서 세계헌혈자의 날을 알리는 캠페인에 사용돼 시민들에게 헌혈의 중요성과 세계헌혈자의 날을



홍보했다. 이어 세계헌혈자의 날인 14일 도내 헌혈의집 한라센터와 신제주센터에서 헌혈자들에게 전달했다.

에스와이인더스트리 마스크 기부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에스와이인더스트리(대표 이정환)가 지난 11일 자사 생산제품인 라이트 마스크 86만4000장(3억1000만원 상당)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기부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배송에 발생하는 물류비 242만원은 초록우산 제주후원회(회장 장행우)에서 전액 지원했다.



제일플란트치과의원 희망나눔 명패

제일플란트치과의원(대표원장 조정민)은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 달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제일플란트치과의원은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임플란트 수술 전문 병원으로, 매일 일정액을 적십자사에 기부하며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하게 된다.



안덕면 '수국빛 나눔 마당전' 개최

서귀포시 안덕면과 안덕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재현)는 14일 안덕생활체육관 주차장에서 '안덕면 수국빛 나눔 마당전'을 개최, 수국 키트 700개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배포했다.

이날 수국 꽃길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수국 묘종 2주, 수국 마스크 5개, 헌혈 홍보물품 등으로 구성된 수국빛 나눔 키트를 제공했다.



한경119센터·여성의소리 김치 전달



제주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센터장 장행순)와 환경여성의용소방대(대장 홍은경)는 지난 12일 한경면 독거노인 및 국가유공자 20여 가구에 사랑을 담은 김치를 전달했다.

이도1동장애인지원협 이웃에 밀반찬



제주시 이도1동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박종선)는 지난 13일 저소득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25가구에 밀반찬을 제공했다. 밀반찬 나눔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오리온재단 제주학회에 발전기금 기탁



오리온재단(이사장 이재경)은 지난 11일 '바람이 만드는 제주' 주제로 열린 사단법인 제주학회(회장 이영돈 제주대 교수) 제52차 전국학술대회에 맞춰 제주학회 학술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오리온 재단은 2018년부터 제주학회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돈 제주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오리온재단의 변함없는 지원으로 학회 연구 활동과 학술 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 기금은 앞으로 제주학회 춘계·추계 전국학술 행사, 학술지와 총서 발간 등에 쓰여질 계획"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플랫폼 '제주 재생e넷' 오픈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김태운)는 지난 10일 제주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 플랫폼 공간인 '제주 재생e넷'을 오픈했다.

이번에 문을 연 '제주 재생e넷'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한 체험, 전시, 교육 등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각종 물품과 도서를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에너지전환 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지방의제21 수립과 권고를 기초로 설치된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용담1동통장협의회 코로나 방역활동



제주시 용담1동통장협의회(회장 강석철)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소공원 및 야외체육시설 10개소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동정

미안마민주화 지지 전문가 토론회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4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미안마 민주화 지지를 위한 제주지역 전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

호국영령 합동 추념식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5일 제주시 신산공원 내 6·25 참전 기념탑 광장에서 열리는 제10회 6·25전쟁 호국영령 4인 및 호국영령 합동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

봉개동 장애인가구 김치배달 행사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6일 봉개동장애인지원협의회가 주최하는 '장애인가구 김치배달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

제주대 '평생교육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학장 남진열)이 최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 5년 연속 선정돼 7억3000여만 원을 지원받는다.

미래융합대학은 건강뷰티향장·관광융복합·부동산관리·실버케어복지학과 등 4개 정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만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특성학교(실업계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능시험 없이 서류·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교4-H회 나무가꾸기 과제활동 지원



(사)서귀포시4-H본부(회장 고성봉)와 서귀포시산림조합(조합장 오형욱)은 14일 서귀포지역 학교4-H회 4개 교에 호야, 테이블 야자, 고무나무 등 3종 200본을 학교 4-H회 나무가꾸기 과제활동을 위해 지원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텍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텍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텍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텍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텍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가까이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대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제품은 '영문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원심의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